



광주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가시화

어린이 '무임'·청소년 '정기권' 추진방향 가닥
시행방안 확정시 이르면 내년 도입 가능성도
姜시장 "포폴리즘 우려...정부·국회 협의 필요"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 교통과 관련 케이(K) 교통 패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의회 등에 안건으로 올

려 산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 받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만,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검토 중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방안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매일 1만원 상당의

월패스 '정기권'을 1단계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어린이·청소년 모두 '무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의 경우 1단계는 연간 90억원, 2단계는 12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전남 13개 기초단체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교통,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추경경정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포폴리즘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위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가 연계되고 있는데 무료 적용 범위와 시스템 변경, 적용 시점, 정확한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박선강 기자



이글이글 타는 도로 광주·전남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9일 광주 서구의 한 도로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궈져 이글거리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애리 기자

수능 '킬러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이주호 부총리 "공정 수능"이 물수능 의미 아냐
민주당 "대통령직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 맹비난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폐지기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

의를'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

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전남교육대전환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포럼

'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만든다' 주제 토론
7월3일 오후 2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

광주매일신문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3일 오후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열리는 독서인문교육 포럼은 '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통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방안과 대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에서 전남교육의 거시적인 성

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과 독서인문교육의 중요성을 도출해 미래 전남교육 정책반영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통해 '전남 교육 대전환'을 만드는 계기가 될 이번 토론회는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독서인문교육포럼에 관계자는 물론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포럼 -책으로 전남의 미래를 만든다-
- 일시 : 2023년 7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무안군 소재)
- 주제발표 :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
- 토론 : △좌장 : 이성래 전남도교육청 미래교육과 팀장
△토론자 : ▲김춘식 동신대학교 교수 ▲이동윤 순천복성고등학교 교사 ▲이윤하 목포해인여자고등학교 학생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장 ▲황기웅 흑산초등학교 교사
-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광주매일신문

"日, 7월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姜시장 "정부, 반대 의견 분명히 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검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닌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서강시장은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서 죽지 않는다고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위험과 비용을 공공재인 바다에 전가하는 것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은 위험·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반 시민이 위험·비용·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기수희 기자

Today

"인구 위기 비상사태 선포 필요" 4면
지역 수출 3년만에 최대 감소율 12면
최형우, 1,500타점 대기 기록 초읽기 16면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0.54kWh/일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 끄기 0.1kWh/일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올 여름 계획적으로. 1kWh 줄이기로부터 시작

올 여름엔 휴가 계획보다 에너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세요. 전기 사용 패턴을 조금씩만 바꾼다면 어렵지 않게 하루 1kWh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이 많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하루 1kWh 줄이기 01.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0.41kWh/일
02.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일 03.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0.32kWh/일